

# 더 오래, 더 널리 광주를 알린다

‘이매진 씬가능 기획’, 역사공간에 어울리는 곡 노래·글 소개  
적십자병원·전남대·양림동·고려인마을 등 9개 영상 올려  
최고은·주하주·이형주·강숙향·우물 안 개구리 등 참여

광주는 역사의 ‘공간’들로 가득하다. 뜨거웠던 1980년 5월 참혹한 살육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외치던 전남대학교부터 일제 강점기 노동자를 착취당한 전남방직 노동자들이 고단한 하루 일과를 풀었던 발산마을까지 역사 속 다양한 공간들이 흔재돼 있다.

‘광주 어쿠스틱’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광주의 ‘공간’으로 상기시킨다. 목사 임의진 감독을 비롯해 전남대 출신으로 이뤄진 ‘이매진 씬가능 기획’은 영상 콘텐츠 ‘광주 어쿠스틱’을 기획·제작했다.

‘광주 어쿠스틱’ 이름의 뜻은 아날로그적 광주, 때 묻지 않은 광주를 노래하자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묻음은 경쟁, 오디션 등 예술의 본질을 해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매진 씬가능 기획’은 무대 한번, 박수 한번에 막을 내리고 잊혀지는 공연들을 보며 더 오래, 더 널리 광주의 역사를 알리지 못한다는 갈증을 느꼈다. 그리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신의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10대 여자아이와, 지하철 이동 중 무료하게 핸드폰을 뒤적이는 서울의 30대 남성과 이제 막 핸드폰을 배워 자판을 치고 있는 광주시 운암동의 60대 어르신에게 이르기까지 영상을 시청하는 모두에게 광주 역사의 공간에서 발생한 일과 담긴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매진 씬가능 기획’은 역사와 기억을 간직한 광주의 장소를 섭외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 밴드, 싱어송라이터를 영입해 담는다. 이들이 제작한 영상은 유튜브 계정 ‘광주 어쿠스틱’에 업로드 된다. 이달 14일 업로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개 영상이 올라와있다.

영상은 가장 먼저 장소를 비교해 의미하는 바, 현장에 담긴 역사를 화면 속 글로 소개한다. 이어 아티스트가 등장하고 장소에 어울리는 곡을 노래한다.

먼저 첫번째 영상에서는 가수 주하주가 적십자병원에서 ‘오월의 노래’를 노래한다. 통기타를



정용주(위), 강숙향



이형주(위), 최고은

건 태어난다’와 ‘광주에 가면’을 잔잔한 목소리로 노래한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오래된 고택, 시인, 화가, 가수들이 등지를 들고 있는 광주 예술의 장이자 광주 근대사의 현장인 남구 양림동을 조명한다. 이곳에 위치한 한희원 미술관을 배경으로 강숙향이 ‘사노라면’을 피아노 반주와 함께 선보인다.

이주 고려인들이 품담고 지내는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을 조명하는 영상도 있다. 아티스트 우물 안 개구리는 ‘갈 수 없는 고향’, ‘광주의 밤’을 노래하며 떠나는 고려인의 마음을 위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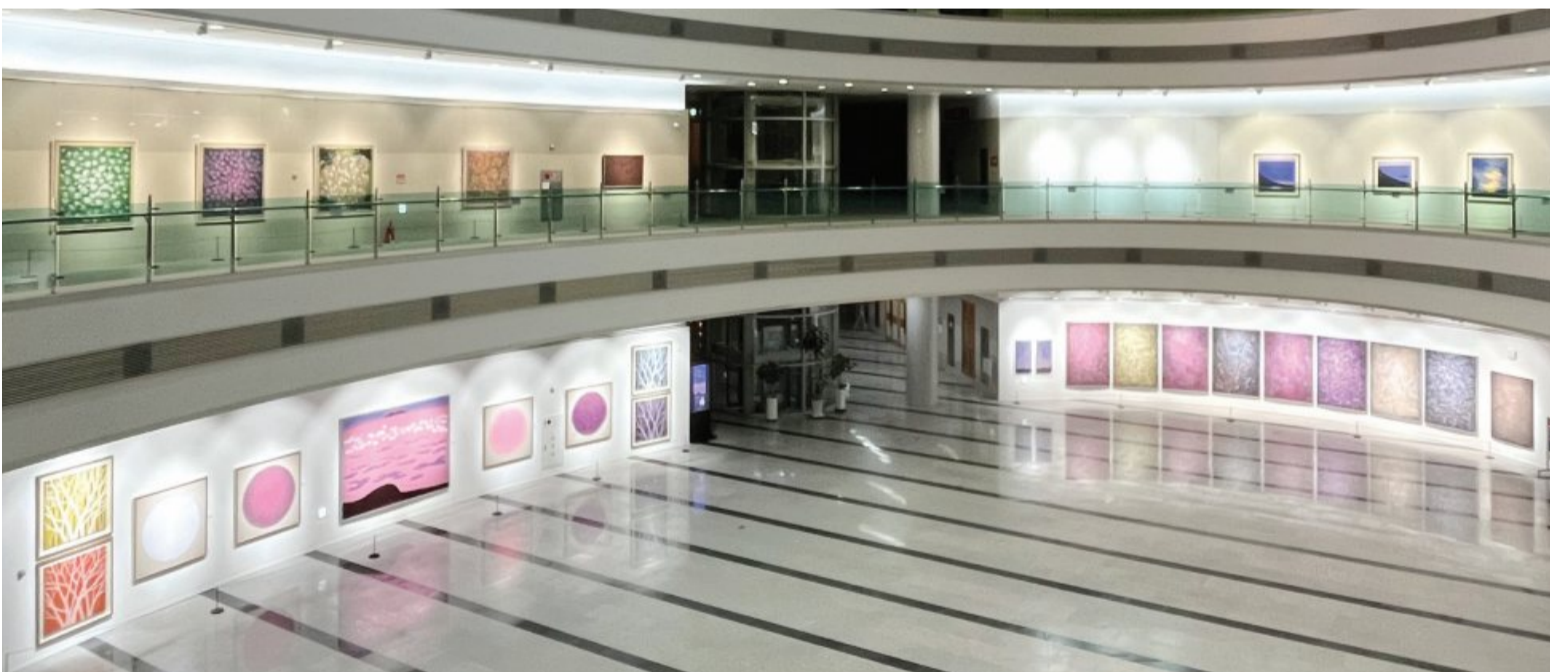
이들에게 광주는 언제까지나 무한한 공간이다. 황석영 선생이 5·18 현정곡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했던 현재 북구 운암동의 광주문화예술회관 국악당에서 오월 광주를 노래하고, 상무지구 조각장에서 버려진 쓰레기 더미들을 노래하고, 광주 교도소 담벼락 앞에서 자유를 노래하는 것처럼 말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들고 의자에 앉아 노래하는 아티스트와 함께 적십자 병원 외부의 무성한 넝쿨과 병원 내부의 멈춰버린 과중 시계,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담겨 있다.

두번째 영상에서는 광주 출신 아티스트 최고은이 ‘축제’와 ‘물줄기소’를 기타치며 노래한다. 최고은의 뒤로는 낮은 건물과 높이 솟은 아파트 사이 전남방직에 다니던 노동자들이 연탄을 사들고 계단을 오르던 발산마을의 풍경이 펼쳐져 있다.

광주와 전남의 수많은 지성인을 걸러낸 전남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상에는 윤상원과 박관현, 김남수, 박승희 열사가 걸린 ‘민주와 정의의 길’이 보인다. 이곳에서 가수 이형주는 네루다의 시 ‘그



지스트 오룡아트홀 개관 기념전에 초대된 김혁정 작가의 전시 모습.

<지스트 제공>

## 지스트 ‘오룡아트홀’ 개관...지역민 문화생활 공간으로

오룡관 활용 ‘아트갤러리’로...오늘 개관식, 김혁정 첫번째 초대전

과학 인재 양성의 산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기선)가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지스트는 함께 성장해온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오룡아트홀’을 오픈했다. 개관식 21일 오후 5시, 아트홀이 자리한 곳은 캠퍼스 정문 인근에 위치한 오룡관이다.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건물인 오룡관은 입학식, 학위수여식, 각종 학술 세미나,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오룡아트홀은 오룡관 1층과 2층 내벽을 활용한 아트 갤러리 형태로 운영된다. 학교 측은 조각가 최순임 작가를 아트 디렉터로 초빙, 다채로운 전시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첫번째 초대전은 서양화가 김혁정 작가가 장식

한다. ‘섬으로 떠돌아 꽃으로 피어나라’ (21일~2023년 1월 31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300여 대작을 비롯해 모두 41점의 작품이 나왔다.

‘꽃들의 미소’ 연작은 자연과 생명의 이미지를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표현해낸 작품이다. 다채롭고 화려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작품은 피어 나는 꽃, 떠 있는 섬, 그리고 하늘의 별을 모티브로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꽃으로 다시 피어나고 하늘의 별로 떠오르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기도 하다.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소르본 제1대학 조형미술 박사 과정을 수료한 김 작가는 독일 만하임 초대전, 프랑크르 살롱전, 살롱 도톤전 등에 출품했으며 올해는 서울 인

사아트센터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오룡아트홀은 앞으로 조명해야 할 지역 작가를 초대하고 청년·신진 작가들에게도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문화계를 풍성하게 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2월에 시작하는 두번째 초대전은 최순임 작가의 ‘BON VOYAGE’ 전이다.

오룡아트홀은 평일·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기선 총장은 “지역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지스트가 핵심 역할을 하고 지스트를 지역과 소통하고 개방적인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지스트 성장시켜준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김혁정 작가의 전시가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노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전남미술의 재발견’

함평군립미술관 소장품전, 내년 2월 19일까지

‘다채로운 전남 미술을 만나다.’ 함평군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전남미술의 재발견’이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 제1·2전시실에서 열린다.

남도 미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획전에서는 전남 출신 작가 70여 명의 다채로운 미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조선 후기부터 3대째 화맥을 이어온 허련, 허형, 허견의 한국화를 시작으로 허견의 3대 제자로 불린 신영복, 조광원, 김명제의 대표 작품들이 전시된다.

한자 서체의 경계를 허물고 ‘소전체’라는 독특한 서체를 확립한 ‘한국서예의 거장’ 손재형과 그를 이어받아 파격적인 판본체의 한글 서예로 명성을 얻은 서희환 등의 서예작품도 준비돼 있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사실적인 표현을 중요시하는 구상계열과 비구상 계열의 추상 작품을 비교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구상계열은 예술원 회원인 오승우 작가, 조선대학교 1회 졸업생인 김영태 작가를 비롯해 정다운, 박석규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추상 계열은 전



오승우 ‘집장생’

남 추상 미술을 이끈 최중섭, 오승운, 김진열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해설프로그램(도슨트)은 사전 신청을 통해 운영된다. 함평군립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1-320-227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편집된 생태계’

윤성필 초대전, 내년 1월12일까지 전남대학교 박물관

인공위성 사진을 자연의 틀에서 재구성하면 어떤 느낌을 환기할까.

현대 기술은 편리라는 이기를 주는 한편 지구온난화, 환경 재앙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날기도 했다. 문명이 지닌 이중성이다.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을 형상화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전남대학교 박물관은 ‘편집된 생태계’라는 주제로 윤성필 작가 초대전을 내년 1월 12일까지 개최한다.

한국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작업을 시리즈별로 해나가고 있는 윤성필 작가는 최근 시작한 시리즈 ‘편집된 생태계’에서 일상의 다양한 이미지를 차용하고 이를 편집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인공위성 사진들을 편집해 자연을 매개로 재구성했다는 데 특



‘편집된 생태계’

징이 있다. 모두 19점이 출품됐다. 작가는 기술의 양면성을 초점화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 방안을 모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메타버스 공연 ‘비비런’ 서울 무대에

ACC재단, 22~24일 성북구립 글빛도서관

‘비비런’은 고성오광대탈놀이(국가 무형문화재 제7호)를 모티브로 창작한 이야기에 가상현실(VR) 기술을 결합한 공연이다. 일명 메타버스 체험 공연.

‘비비런’은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고성오광대 전승자들이 출연해 우리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보여줄 뿐 아니라 모션 캡처, 페이스 캡처 등 실감기술을 덧입혀 완성도를 높였다.

‘비비런’이 오는 서울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2~24일 성북구립 글빛도서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VR체험만 가능했던 기존 콘텐츠에 XR(확장현실) 스테이지와 실제 배우의 연기를 더해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매개로 LED스크린 배경에 전문 연극배우의 연기를 더해 흥미를 가미했다.



‘비비런’

한편 이번 공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성북문화재단, ㈜디아랩이 공동 주관한다. 참여신청은 성북구립 글빛도서관으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